

## 2) 읍·면 지명

### ① 승주읍(昇州邑)

승주읍은 옛 승주군 쌍암면(雙岩面) 지역으로, 쌍암은 월계리 쌍암의 이름을 딴 것이다. 1985년 승주군의 치소를 이곳에 두면서 승주읍으로 개칭되었다.

### ② 주암면(住岩面)

옛 승주군 지역으로, 배바위(주암)의 이름을 따서 주암면이라 했다.

### ③ 송광면(松光面)

옛 승주군 지역으로, 송광사의 이름을 따서 송광면이라 했다.

### ④ 외서면(外西面)

조선시대 낙안군 지역으로, 낙안 읍내 서쪽이 되므로 외서면이라 했다.

### ⑤ 낙안면(樂安面)

조선시대 낙안군 지역으로, 1908년 순천군에 편입되었다. 1949년 승주군에 소속되었다가 1995년 순천시에 통합되었다. 낙안 읍내가 되므로 읍내면(邑內面)이라고도 하였다.

### ⑥ 별량면(別良面)

고려 때 별량부곡(別良部曲)이 있었으므로 별량면이라 했다.

### ⑦ 상사면(上沙面)

이사면(伊沙面)의 위쪽이 되므로 상이사면(上伊沙面)이라 하다가 줄여서 상사면이라 하였다.

### ⑧ 해룡면(海龍面)

본래 순천군 지역으로, 지형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용두면이라 하였다. 1914년 해촌면과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해룡면이라 하였다.

### ⑨ 서면(西面)

본래 광양군 지역으로, 광양 읍내의 서쪽이 되므로 서면이라 했다.

### ⑩ 황전면(黃田面)

누랏(황학리, 황전)의 이름을 따서 황전면이라 했다.

### ⑪ 월등면(月燈面)

본래 순천군 지역으로 망월(望月)과 점등(店燈) 두 마을의 이름을 따서 월등면이라 했다.